

韓國養鹿의 現況과 展望

常任理事 洪 意 行

오늘날 번창하고 있는 양록업의 출발은 우리나라 固有의 사슴이라 할수있는 만주록계 꽃사슴 수십두가 8.15 해방과 함께 개성에서 서울로 옮겨져 사육되었고, 그후 사슴의 희귀성을 느껴 1956 년부터 대만·일본등지로부터 수차에 걸쳐 수입해 온 꽃사슴류가 그 주종을 이루며 사육번식 되면서부터 비롯된다.

1960年代에 와서는 차차 활기를 띄기시작, 일부 부유층들이 관상을 겸한 보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수요자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녹용의 국산화 촉진

을 목표로 뉴질랜드와 북미·캐나다에서 레드디어와 엘크등 대형 사슴까지 수입하게 되어 1975 년말에는 3천6 백여두의 사슴이 전국 도처에서 사육되었다.

이렇게해서 본격적인 양록업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낸 2 십년간, 본 협회에서 추산된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86 년말 현재, 꽃사슴이 5 만 2 천여두, 레드디어 2 천여두, 엘크가 3 천 1 백여두, 총 5 만 7 천여두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으며 4 천여에 이르는 전국목장에서 사육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품종별 사슴사육두수

(한국양록협회추산)

연 도	목 장 수	사 육 두 수	품 종 별 분 류		
			꽃 사 슴	레 드 디 어	엘 크
1975	389	3,677	3,332	138	207
1980	1,419	12,921	11,761	462	698
1985	3,485	44,839	40,823	1,605	2,427
1986	4,182	57,507	52,336	2,507	3,114
1990	9,336	121,310	110,390	4,344	6,576
1995	26,188	420,905	382,780	15,099	23,026

<산출근거>

성 빈 수 ~ 연초두수 × 30%

감 수 ~ 연말 총두수에서 5% (폐사 3% 도태 2%)

연증가율 ~ 28.25%

이 20년간을 양록업계 성장면에서 드러다보면 養鹿業 초기인 1960年代는 꽃사슴의 매력적인 희귀동물로서 관심을 겸한 사치업에 쏠려 부유층의 경쟁적인 사육으로 分讓(번식)위주의 사육기간이었고, 1970年代는 中·大型(레드디어, 엘크) 사슴이 輸入되면서 녹용생산을 위주로하는 고소득 축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사슴붐을 형성케한 시기라 하겠다.

이같은 사슴붐을 타고 사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때는 꽃사슴 한쌍에 5·6백만원 엘크 한쌍에 당시 아파트 한채에 버금가는 3천여만원을 호가하는 사슴업계의 호황이 이뤄졌다.

이와같은 양록경기를 기화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사슴수입 군상들의 집요한 도전과, 사리에 급급한 사슴중상들의 농간으로 유통질서는 어지럽혀졌고, 끝내는 養鹿家들 보다도 중상인들을 위한 양록업계로 전락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터져 나온것이 1983年 9月初에 이른바 가짜 녹용수입파동이라 하겠다 국제녹용시장에서 80%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량수요를 악이용해 대량으로 반입하여 시판한 사실을 KBS 2방송 “추적 60분”에서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은 불량녹용을 대량 매입, 소금물이나, 간수를 넣어 부패를 방지하고 색깔이 없는 하대인 백통뼈에다 돼지피, 혹은 소피를 주입시켜 착색한 다음, 백반을 첨가해서 국내 시장에 팔아온 것

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외제선 호사상을 악이용해 빚어진 웃지못할 촌극의 한토막이라 하겠다.

이로말미암아 국내 유망축산업으로 받돋음하던 양록업계에 까지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이사실을 깊이 모르는 일반 수요자들은 국내산마저 이와함께 매도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후 양록업을 동경해 오던 많은 양록 희망자들은 차차 그 의욕을 상실케 됐고 매력을 상실한 부유층들은 사슴사육을 회피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슴유통은 맥헛고, 농장마다의 거래는 부진, 사슴값은 下落一路에 접어들었다.

每月 各地域단위로 보고된 협회운영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쌍당 1천7만원에 사드린 레드디어는 7백만원으로, 꽃사슴 한쌍 6백만원에 산것이 불과 2백5십만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한마디로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1980年도의 양록업계는 한낫 역사의 章으로 살아져 버렸다.

이제 우리 3천여 양록인은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다. 과거 비쌌던 사슴값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로서 出發한다는 입장에서 양록업에 임해야 할것이다.

하락된 현시세(운영위보고)로서 본 협회가 經營收支를 分析한 결과 꽃사슴을 20쌍단위로 사육할 경우 연간 소득액은 모든공과금과 제상산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1천2백4십만원에서부터 2천3

백 40 만원까지의 순이익을 올릴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 여타가축업인 酪農, 養豚에 비교도 안되는 고소득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유통문제 즉, 사슴분양과 녹용販路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분양에 있어선 년초부터 본 협회내 분양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四月에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10 여건의 서신 전화문의가 오고 있고 직접 방문상담도 月평균 10 여건에 이르고 있는 추세로 보아 가을부터의 사슴분양은 낙관시 되고 있다.

녹용 적시판매에 있어서도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지회에 녹용직매장을 설치 일괄 수탁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편 한의사협회와 협의 직접 한의원에 공급토록 추진중에 있어 녹용판로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古來로 이어져온 우리민족의 녹용에 대한 선호의식은 하루아침에 살아질까답이 없고 옛부터 보약으로만 알려져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녹용이 근래에 와선 수요인구의 범위 확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경희대 高炳熙, 宋一炳박사의 연구진에 의하면 녹용이 단순한 보약의 차원을 넘어 암세포를 자연적으로 파괴하는 N.H (Natural Killer) 세포의 활성도를 촉진 시키는등 면역성을 강화 암치료에도 기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

혀졌다. 이밖에도 녹용의 약제로서의 활용범위는 점차 확산되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의 우리나라 녹용수요를 정확히 예측 할 수는 없지만 국민경제의 고도성장 추세에 비취볼때 그 수요량의 증가는 틀림없을 것이며 전술한바 약품개발에도 널리 이용된다면 앞으로 양록업의 전망은 밝다고 확신한다.

인체건강에 더할나위 없이 有益한 녹용은 人類文化發展과 아울러 個個人的意識構造도 生命延長에 對한 执着심은 加一層 더해만 갈 것이며 이로말미아마 그 수요량은 늘어만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날 세계녹용의 80%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向後 15年後에 人參과 같이 海外에 輸出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一時的인 高所得에만 몰두하지말고 養鹿業發展過程에서 派生되는 제반 역경을 끈기와 인내로서 克服할때 養鹿人들의 앞날은 밝아 올 것이다.